



김종철

前 월간 방송과기술 초대(1·2대) 편집장
現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KPSFF) 사무총장

이번 300호 특집을 준비하며 방송과기술과 관련된 인물을 인터뷰하고자 찾던 중 100호 특집에서 초대 편집장이셨던 김종철 (당시) 차장님의 글을 보게 되었다. 연락을 드려보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계신 터라 신속하게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초대 편집장으로 힘도 들었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삶에 있어 많은 공부도 되었다는 지난 일들에 대해 듣고 있노라니,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김종철 방송과기술 초대 편집장님의 30년 전과 현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근황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과기술 편집장을 맡은 지도 거의 30년이 되어가는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79년 KBS에 입사해 지난 2015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KBS 재직 시절에는 TV 기술국에서 드라마 제작 등을 맡았었고, 퇴직 후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스튜디오 사업도 해보고, 드라마 기획사도 경영을 했으며, 지금도 작게나마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KPSFF)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여기는 은퇴 전 2013, 14년 무렵,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이 없겠는지 요청을 하셨어요. 저도 평소 모든 사람은 예비 장애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편이어서 종합예술인, 영화가 좋다고 판단을 하였지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무거운 방송·영화용 장비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리미어를 통한 편집만 더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국고를 지원받아 2018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잠깐만 도와주기로 했다가 몇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삶의 작은 소망을 불러넣는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군요.

KBS 시절 일을 별로 하지 않았는지, 여러 해야 할 일들이 생기네요. (웃음)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대학에서 콘텐츠 관련하여 강의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88년부터 외부강의를 시작했으니, 경력도 꽤 됩니다. (웃음) 젊은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한편, 요즘 젊은 이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이전과 같이 아침 기상 시간은 5시 이전에 일어나고,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KBS 시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편집장으로서 방송과기술의 제호도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KBS 협회보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당시 KBS 방송기술인협회보의 제호가 ‘방송나래’였습니다.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함축적으로는 ‘가벼운 날갯짓’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송이 전파하는데, 날개처럼 세상을 향해 날아간다’라는 의미죠. 당시 PD분들이 이 제호를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단순한 의미보다는 복합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느낌의 제호였습니다.

월간 방송과기술의 제호를 정할 때도, 방송은 소프트웨어이고, 기술은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에게 부족한 소프트웨어 부분의 소양을 함양시키자 해서 ‘방송과기술’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의 책을 만든다고 하면 50%는 하드웨어적인 기술 동향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주변 이야기, 영화, 여행, 역사, 지리, 철학, 문화, 사회, 에세이 등을 수록하여 종합적인 소양을 얻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방송과기술 제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과기술 편집장을 하며 얻은 것이 있다면?

당시 80년대 말, 90년대 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KBS 별관 C스튜디오의 부조정실 기술감독을 맡던 시절이었는데, 그 전까지 없었던 데이터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지요. 기술 동향과 자료도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전자, 기술과는 동떨어진 비전공자 출신이다 보니, 방송과기술 편집장을 맡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시 KBS 기술연구소와 MBC 기술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전부 ‘방송과기술’에 왔었습니다. 선진 기술과 자료를 남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었고, 모르는 내용은 연구소 동료들에게 물어가며 습득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원고들은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배치하고, 분량이 많으면 시리



2004년 4월 발간된 방송과기술 100호의 축하 페이지의 김종철 초대 편집장

방송과기술을 통해 제대로 된 엔지니어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배운 지식은 저만의 자산이 되어 인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즈로 나누고, 기술 50%, 삶에 관한 교양 50%의 원칙은 줄곧 고수하였지요. 개인적으로 몰랐던 기술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어 편집장을 맡은 일이 정말 도움이 되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간호부터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과기술 발간 초창기에는 원고도 별로 없었고, 원고료의 개념도 없었었죠. 방송과기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었고, KBS 동료들이 저의 업무를 나눠서 해주기도 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차장이 아니었지만 부장을 달면 제공되는 작은 방을 공급받기도 했고요. 많은 빛이 아닌 빛을 쬔었고, 현재 밥값을 내며 신세를 갚아가고 있지요. (웃음)

방송과기술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지요. 당시 연합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빈곤했었습니다. 회원 회비도 제대로 걷히지 않았고, 방송과기술을 제대로 발간할 여력도 안 되었죠. 당시 연합회의 위상은 회원사도 많지 않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외부 강의를 하며 받은 사비를 방송과기술 제작비로 충당하기도 했고, 자리를 잡기까지 중점을 만들자고 생각해 KBS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님께도 많은 빛을 졌다고 늘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을 확보하고자 돌파구를 찾은 것이 지금의 KOBA 전시회입니다. NAB 출장을 다녀오고 이런 전시회를 국내에서 만들면 어떨까 하던 생각을 한국일보에 전했고, 처음엔 한국일보에서 거절했었지만 여차저차해서 첫 개최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선배,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KOBA에 나온 회사의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해주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KOBA도 연합회도, 방송과기술도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방송과기술에 광고지면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방송 장비 광고의 속성상 방송과기술에 자연스럽게 수록하게 되었고, 특히 KOBA를 앞두고는 특집호를 발행할 정도로 많은 광고가 들어왔었지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웃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출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격월간지의 시절이었지만 편집회의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세 차례는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완성된 원고를 메일로 주고받는 시대도 아니었고, 제작에 많은 노동(?)이 투입되어야 했었죠.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타자로 쳐야 했었고, 원고지로 받은 원고도 타자화를 통해 인쇄될 수 있는 원고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광고와 내지 배열 및 교정을 보며, 오탈자를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곤 했지요.

표지도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편집기자가 손수 사진을 찍어 표지로도 사용했고, 동료 중 동양화를 전공한 친구에게 부탁해 표지 제작에도 참여시키

곤 했었지요. 유료구독자도 점차 늘어났고, 과일호는 KOBA 전시회에서 판매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의 노력으로 방송과기술이 발간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제작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HD까지는 섭렵했지만 요즘의 UHD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를 통한 콘텐츠 공급과 유통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예전에 제작비라는 것은 방송국 내에서 조달을 하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 송출을 통해 제작비를 지원받고, 콘텐츠를 분할하여 유튜브에 공급하는 등 OSMU로 콘텐츠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드라마를 시작하면 끝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몰입성이 높아 몰아서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옛 동료가 추천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밤을 새워서 본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콘텐츠 소비 형태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미 방송국 외부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외부 스튜디오에서도 제작비 조달과 유통을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생각하여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로 제작에 들어가는 등 방송국도 더욱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시간이 나면 입체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홀로그래픽 3D 입체영상이 일반 미디어에서 실현되는 시대가 5년 후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작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씩 방송국 내의 인력 및 제작 구조를 바꾸 나가야 시대 변화에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엔지니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방송기술인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국에는 하드웨어 파워(기술 및 방송 인프라 부분)와 소프트웨어 파워(콘텐츠 기획 및 제작)가 있고, 하드웨어는 누가 뭐래도 엔지니어의 분야일 것입니다. 안팎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는 현재, 방송기술인 여러분께서도 그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방송과기술도 제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방송과기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장로로서 매주 성경의 일부를 가장 짧게 요약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내용을 본 다른 교인께서 “성경을 읽어봐야 할 욕심이 생긴다.”면서 유튜브로 제작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렇듯 니즈가 있기에 새로운 방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니즈가 있어야 파워블로거가 생기듯 말입니다.

방송과기술은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자료와 콘텐츠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를 선별하여 방송기술인에게 필요한 정보나 소양으로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모든 정보가 읽는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의 페이지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방송과기술은 정보를 쏟아 내는 원천의 지류들을 갈무리하는 큰 저장탱크가 되어 물줄기 하나만으로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300호를 넘어 꾸준히 방송기술인의 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